

영광 국민여가캠핑장 두 배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파크골프연습장·명상 숲길·이색 전망대 조성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영광을 대표하는 캠핑장인 '국민여가캠핑장 캠핑아이' 인근에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 구수산 일원에 명상 숲길과 이색 전망대를 조성해 캠핑장 이용객이 더욱 만족하고 즐거운 캠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민여가캠핑장 캠핑아이'는 지난 2018년 4월 조성 후 현재는 위탁운영 중인 캠핑장으로 총 면적

19,178㎡에 카라반 사이트 26면, 텐트 사이트 20면, 매점, 회장실, 샤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영광군을 대표하는 캠핑장이다. 코로나19로 캠핑족이 늘어나는 추세에 이곳을 찾는 방문객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캠핑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체험시설 2곳을 조성했다.

첫 번째는 자동차로 2분 거리에 위치한 미촌 파크골프 연습장이다. 영광군은 지난 5월 방치된 인근 소공원에 6홀의 파크골프 연습장을 조성했다. 캠핑의 막간을 이용해 온 가족이 함께 파크골프를 즐기는 이색체험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캠핑장과 연접한 산림에 위치한 별난 명상숲길과 별난 전망대다. 영광군은 국제마음훈련원 일원에 명상숲길 1km를 조성하고, 명상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명상

전망대와 별모양 조형물과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나만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별난 전망대를 조성했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캠핑의 개념에서 벗어나 온가족이 함께 즐기고, 즐거운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아름다운 우리고장을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경률 기자

장성, 인공지능 말동무 인형 지원사업 시범적으로 추진

장성군이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돌봄서비스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말동무 인형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말동무 인형 지원사업'은 경증치매, 우울증 등 고위험 독거노인에게 인공지능 인형을 배부해 악 복용 알림 등 일상케어를 비롯한 말동무,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보건소 및 읍·면 협조를 통해 사업대상자 30명을 발굴·선정하고, 해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형 사용법 교육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군은 노인돌봄인력을 일대일로 매칭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별 대응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기간 종료 후 만족도 조사,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해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 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말동무 인형이 어르신들의 건강·정서 관리는 물론 각종 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례를 확대·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광종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2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시상식에서 2년 연속 국가백신바이오산업 중심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군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국가백신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을 선도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화순군 제공

화순,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2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시상식에서 2년 연속 국가백신바이오산업 중심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군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국가백신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을 선도한 공을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지난 2010

년 특구 지정 이후 연구 개발과 전 임상·임상시험, 제품화, 인증, 생산 제조 등 백신·생물의약품 개발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하는 기반을 갖추며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다.

민선8기에는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첨단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핵심 정책과제로 정하고, 도약을 위한 화순백신산업특구 인프라 고도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천529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첨단복합산업단지에는 면역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과 실험·생산기반인 첨단신약 개발지원 센터, 첨단 신약 생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호경 기자

나주시, 공공 배달앱 '전남 먹깨비'

소상공인 배달앱 중계수수료 대폭 절감

나주시가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절감을 위한 공공배달앱인 '전남 먹깨비' 도입으로 상생 소비문화 정착을 도모한다.

최근 1인 및 맞벌이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패턴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배달앱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배달앱의 경우 과도한 중개(배달)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심각해 공공배달 앱 도입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대두 돼왔으며 현재 전북, 제주를 제외한 광역시·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먹깨비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이익, 소비자는 쾌한소비'라는 비전 아래 전라남도에서 도입한 민·관 협력형 공공배달앱의 명칭이다.

나주시도 앱이 출시된 지난 7월 14일부터 운영을 개시, 가맹 입점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김동철 기자

담양,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추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제공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문의 상담을 제공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편견과 비용 부담의 장벽을 낮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더맑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전시형 원장을 '마음건강주치의'로 위촉했으며,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매주 수요일 오후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상담 가능하다.

상담 결과에 따라 증상과 진단에

독려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전남 먹깨비 가맹점으로 입점하면 다른 민간 배달앱과 달리 입점료, 월 사용료, 광고비 없이 주문 중개수수료 1.5%만 부담하면 된다.

여기에 앱 상위 게시(노출)를 위한 흥보비, 배달업체 클릭 수에 따른 과금 비용도 없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각종 배달앱 수수료를 크게 절감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나주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 가능하다. 공공배달앱 가맹점 신청은 먹깨비 홈페이지나, 업주용 '먹깨비 사장님' 앱, 먹깨비 고객센터(유선)를 통해 받는다.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이나 앱스토어에서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검색해 내려받은 후 가맹 입점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김동철 기자

무안군

청정 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장!
무안을 말하니...

